도민체전 내일 보성서 열린다

22개 시·군서 18개 종목 6천여명 참가

씨름·태권도·골프 등 일부종목 규정 변경

제 45회 전남도민체전이 25일 보성군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에는 육상, 수영등 18개 종목에 22개 시·군에서 온 6천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다.

'녹차 고장 보성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체전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여수를 비롯해 광양, 순천, 목포 등이 종합 1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보성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나주 종합사격장, 남광주CC,벌교제일고 등 20여개 보조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대회 사상 처음으로 야간인 오후 7시부터 도민, 선수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선수단입장, 대회기 계양, 축하영상 메시지 발표 등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후 4시30분부터는 공군 축하비행, 특전사 고공강하시범 등 식전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이번 대회부터 씨름과 태권도, 골프종목등 일부 종목의 규정을 변경했다.

씨름은 지난해까지 남자 5인제 단체전을 남자 4명, 여자 3명 출전등 남·여 혼성 일반부 7인제 단체전으로 변경했으며 태권도는 여자부 4체급을 신설해 시범종목으로 치른다. 지난해까지 시범종목이었던 골프는 50%를 채점함으로써 시·군의 참여도에 불을 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내와 태극전사 컨디션 점검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열린 2006 K리그 FC서울과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장을 찾은 딕 아드보카트 축구 대표팀 감독이 부인과 함께 태극전사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아스날전 팀내 최저 평점 받아

이영표(29·토튼햄)가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로부터 팀내 최저 평점을 받았다.

스카이스포츠는 2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튼햄-아스날전이 끝난 직후 이영표의 플레이에 대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Not up to Class)"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5점을 줬다.

이날 토튼햄에서는 이영표와 함께 폴 스탤터리, 에드가 다비즈, 대니 머피 등 4명이 팀내 최저평점인 5점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벨인포컴 여자볼링팀 동메달

벨인포컴(광주대표)여자볼링팀이 제25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볼링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벨인포컴여자볼링팀(김희보, 이미선, 이미숙, 조혜원, 선지홍, 최은주·광주대표)은 지난 22일 마산 세기볼링장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에서 5,984점을 기록, 동메달을 따냈다.

이미숙은 여자 개인 종합에서 5,022점을 기록해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주개

24일(월)

▲대통령배 고교야구 준결승전(13 : 30·KBS2)

▲제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13 : 20·KBS SKY SPORTS), 준결승2(18 : 30·KBS SKY SPORTS)

삼성 '우승 보인다'

챔프 3차전서 모비스 제압

파죽의 3연승 … 1승 남아

서울 삼성이 2005-2006 KCC 프로농구 통합챔피언 등극에 1승을 남겨 놓았다.

삼성은 23일 홈구장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3차전에서 네이트 존슨(24점)과 강혁(21점)을 앞세워 울산 모비스를 88-85로 제압했다.

이로써 울산 원정경기 2연승에 이어 다시 1승을 추가한 삼성은 25일 오후 6시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1승을 추가하면 2001년 이후 5년만에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삼성은 1쿼터를 20-29로 뒤진 삼성은 2쿼터에서도 삼성은 서장훈이 9점을 넣으며 공격에 가세했지만 상대팀 단신 가드 양동근이 골밑 돌파에 이은 레이업슛만으로 10점을 올려 놓는 것을 지켜보며 전반까지 43-51로 끌려 갔다. 하지만 삼성은 3쿼터 존슨의 득점포가 불을 뿜으며 쿼터종료 7분44초전 강혁의 3점포로 48-55를 만들며 추격의 불을 댕긴 후 종료 전 5분 동안 10점을 몰아 넣어 68-67,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4쿼터 시작 17초만에 김동우의 3점슛으로 70-68로 다시 전세를 뒤집은 모비스는 6분39초를 남기고 이병석의 3점슛에 이어 1분 뒤 윌리엄스의 덩크슛으로 81-74를 만들며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삼성도 무서운 외곽포가 있었다.

공격권이 바뀐 뒤 강혁과 서장훈의 3점포가 잇따라 작렬했고 이어진 공격에서 존슨의 골밑슛 2개가 연속 들어갔고 종료 53초전에는 서장훈의 훅슛이 림을 통과하면서 86-83으로, 삼성의 리드.

모비스는 종료 7.5초전 양동근의 자유투 2개로 85-86으로 따라 갔고 파울 작전을 펴며 역전을 노렸지만 상대팀 서장훈이 자유투 2개를 모두 넣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3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5-2006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3차전 서울 삼성 대 울산 모비스의 경기에서 삼성의 서장훈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8경기 연속 무승부

FC서울과 0-0

사령탑 교체라는 극약처방을 앞세운 부산 아이파크가 쾌조의 3연승을 이어간 가운데 박주영(FC서울)은 6경기째 무득점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부산은 2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 삼성하우젠 K-리그 10차전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에서 전반 10분 소말리아의 첫 골을 시작으로 안현승, 뽀뽀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4-1로 압승했다.

대전에서는 홈팀 대전 시티즌이 대구FC를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1-1 무승부를 거뒀다.

또 서울에서는 FC서울이 1명이 퇴장당한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골 침묵을 지키면서 최근 3경기 연속 0-0 무승부. 특히 FC서울의 박주영은 유럽출장을 다녀온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90분 동안 단 두 차례 슈팅에 그치는 부진 속에 6경기 무득점에 허덕여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남은 올 시즌 10경기 무패행진(1승9무)에 최근 8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용규는 안타를 좋아해~"

시즌 초반 맹타 … 타격 1위 질주

중심타선 부진불구 KIA 2위 견인

"용규는 안타를 좋아해~"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21)가 타석에 들어서면 관중석에선 어김없이 모 음료 CF를 패러디한 '용규는 안타를 좋아해~'란 응원가락이 터져 나온다.

이용규는 이에 화답하듯 어김없이 안타를 때려낸다.

KIA 타이거즈 이용규(21·사진)의 방망이가 시즌 초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KIA가 이종범, 이재주, 심재학 등 중심타선의 부진에도 단독 2위(6승1무4패)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용규의 매서운 방망이 덕분.

이용규는 지난 21일 LG 잠실전에서 0-2로 뒤지던 9회 첫 타자로 나와 좌전 안타로 팀 분위기를 살려냈다. 이후 KIA는 타자 일순하며 4점을 뽑아내며 역전승했다.

지난 20일 홈에서 열린 롯데전에서도 팽팽한 '0' 의 행진이 이어지던 4회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안타로 첫 득점의 물꼬를 텄고, 5회에는 싹쓸이 2타점 3루타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처럼 팀의 고비마다 영양가 만점인 타격을 펼치고 있는 이용규는 23일 현재 10경기서 36타수 16안타, 8타점으로 타격 1위(0.444)를 질주하고 있다. 안타부문에선 공동 2위, 3루타는 단독 1위(2개)다. 이용규의 활약 덕분에 KIA의 팀타율도 0.257로 SK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용규는 지난 2004년 2차 지명(덕수정보고)으로 LG에서 첫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병규, 박용택 등이 대선배들의 그늘에 가려 선발을 꿰차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KIA로 이적하면서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적 첫 해 9번타자로 0.266의 타율로 가능성을 보여준 뒤 올 시즌에는 초반이긴 하지만 리딩히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